"다양한 매체 실험…창의적 작품 기대하세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 '눈길'

김명우·유지원·강수지·이뿌리·김형숙 작가 등 5명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매체 실험과 협업을 매개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미디어아트는 중요한 중심축이다.

문화재단은 올해 역대 미디어아트 입주작가 특별 기획전(18일~7월 8일)을 마련하는 등 광주 미디어아트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평가와 작품 크리틱을 진행하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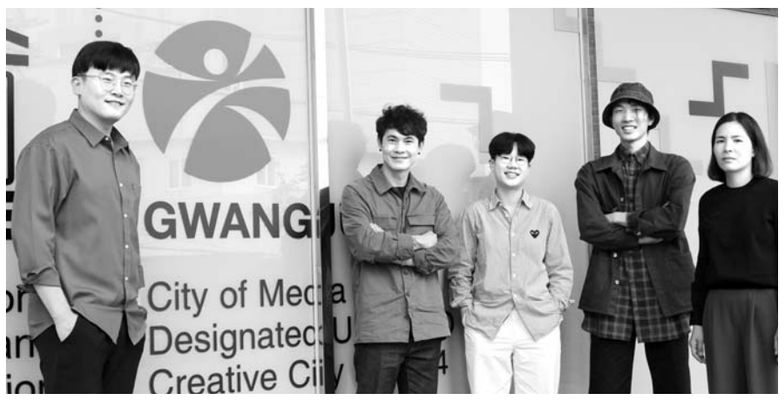
올해도 다채로운 활동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의 활동이 시작돼 눈길을 끈다.

9회째를 맞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의 입주작가는 강수지, 김형숙, 이뿌리(이근요), 유지원, 김명우 등 모두 다섯 명. 이들은 입주를 마치고 향후 레지던스 프로그램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수지 작가는 개인적 경험과 불완전한 사회가 맞닿는 지점을 사진과 영상 작업을 통해 탐구해왔다. 강 작가는 "입주 작가들과 교류하며 기존의 문제의식을 심화,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우리 앞의 모든 차이와 틈을 살피고 이를 메우는 예술의 역할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 마인츠 미술대학에서 미디어아트 디플롬, 영화를 마이스터로 졸업한 김형숙 작가는 공간이 주는 느낌에 따른 작품세계를 표현한다. 김 작가는 "레지던스에 참여하면서 작가의 위치로서 다시 광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뿌리(이근요) 작가는 목장노동자이면서 순창의 열린 자연을 캔버스로 글씨를 쓰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는 "민주적 가치와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광주의 '빛의 총화'를 탐색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입주작가에 선정된 김명우·유지원·강수지·이뿌리·김형숙 작가(왼쪽부터) 〈문화재단 제공〉

프랑스와 일본에서 활동한 유지원 작가는 6월 특별전 참여를 시작으로 7월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10월 무안 오승우미술관, RGBst 특별전과 광주에서 개인전을 준비한다. 유 작가는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차분하게 작가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더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상과 설치작업을 주 표현도구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김명우 작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다. 작년에 실험적인 작품들을 진행한 그는 올해는 "다채로운 협업을 진행해 교류범위를 확장하고 싶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힘드시죠? 저도요…넘어진 김에 우리, 잠시 쉬어요."

며칠 전 광주 금남로를 걷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구를 접했다.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쓴 배너였다. 그런데 한 두 개가 아니었다. 몇발짝 더 걸어가니 또 다른 글과 그림이 얼굴을 내밀었다. 얼추 수십 여개가 금남로의 가로등 곳곳에 내걸렸다. 종종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를 알리는 배너광고는 봤지만, 이날 금남로의 '그것'은 조금 달랐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춤! 더 멋진 춤을 위해! 잠시 멈춤', '뭐다고 지낸가~ 같이 돌아댕긴 그날이 좋았구만! 좋은 걸 좋은지 몰랐었당께', 'Rise up Korea, Shout Gwangju' …. 표현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주제는 하나였다. '광주예술인들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60x180cm 크기의 배너들에는 절로 미소를 짓게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한 컷'이 새겨져 있었다.

청년작가 노여운은 비록 인적은 끊겼지만 화사한 색감으로 평온한 골목 풍경을 그린 '스며들다'를, 작곡가 승지나는 사회적 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는 뜻을 담은 '코로나 안전송'의 악보를 선보였다. 마치 '게릴라 콘서트'처럼 거리에 깜짝 등장한 예술인들의 메시지는 오가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선사했다. 그래서인지, 몇몇 젊은이들은 이들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번 예술배너는 광주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공공 프로젝트다. 이름하여 '300, 소리없는 아우성'. 코로나19로 '무대'가 사라진 예술인들에게 창작 지원 명목으로 총 9천만원을 들여 300명의 예술인을 선정, 1개 작품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긴급 지원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홍보기간이 짧아 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런데 웬걸,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자 마자 400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예술인들이 앞다투어 이번 사업에 문을 두드린 것.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0점은 지난달 말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 5가, 일부 천변도로에 설치됐다.

거리에서 만난 '따뜻한 위로'

이처럼 코로나19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미술관들이 문을 닫는데다 각종 축제마저 속속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올스톱된 상태다.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후 재개관한 문화예술기관들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상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배너 사업은 벼랑끝에 몰린 예술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았을 터.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광주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비록 예술인들을 위한 '작은 지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답답한 일상을 깨는 청량제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러니 혹시 거리에서 '예술배너'를 만나거든, 잠시 걸음을 멈추시길. 그들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뜻밖의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 빛낼 대표 연극팀은?

광주연극제, 12일까지 유·스퀘어

대상 팀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제34회 광주연극제가 12일(오후 7시30분)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고있다.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원광연)가 주최하는 광주연극제는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를 대표해 참가할 연극팀을 선정하는 예선무대로 올해는 극단 좋은 친구들, 사람사이, 시민, 진달래피네, 까치놀, 얼·아리 등 총 6팀이 참가한다.

극단 좋은친구들이 2일 첫 공연 '사랑입니까'를 선보였다. 작품은 깊은 산속에 홀로 천막을 치고 은둔생활을 즐기는 아들 용진과 그런 용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양보할 수 없는 신경전을 그렸다.

극단 사람사이의 '목마른 물고기'는 4일 무대에 오른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바닷가 작은 어촌마을 한 카페에 나타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관주인 김 씨가 찾아와 남자를 이끌며 하루 머물기를 권하고, 횟집 주인 강 씨는 남자에게 식사하러 가자며 서로 남자를 데려가기 위해 옥신각신한다.

6일에는 극단 진달래피네가 '파수꾼'을 무대에 올린다.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에서 파수꾼은 끊임없이 이리 떼의 내습을 감시한다. 진실을 본 파수꾼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 덮으려는 촌장,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광주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 얼·아리의 '그래도, 따뜻했던' 공연 모습.

극단 시민의 '댕기머리'는 8일 만날 수 있다. 1929년 나주역 앞에서 발생한 '댕기머리 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리고 소설을 읽는 남자1과 남자2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극단 까치놀이 10일 선보일 '대학로는 파업중'은 대학로에 위치한 '도깨비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한다. 연일 계속되는 연극인들의 파업과 시위로 폐업 위기에 처한 나이트클럽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나서 뮤지컬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극제 마지막 무대는 12일 극단 얼·아리가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로 장식한다. 작품은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연극이 사라졌습니다'를 전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작가와 배우,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이야기다.

대상 수상 팀은 오는 8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하게 된다.

거리두기 좌석제 운영(50석).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역사문화시민대학 개최

김순흥 교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한민족의 전통 사상과 정신문화'를 주제로 제9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을 연다.

이번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우리나라 고유 사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오는 9일부터 23일까(매주 화·목 오후 3시) 광주 동구 미로센터에서 네 번의 강좌와 대전 문화탐방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선비정신, 지금도 현재 진행형?'(9일·조우진 전남대 교수), '역사 속 꽃 피웠던 불교문화'(11일·이계표 조선대 교수), ''NO재팬'으로 들여다본 한민족의 정기와 일제 잔재'(16일·김순흥 광주대 명예교수), '예술로 만난 민중신화와 사상'(18일·김봉준 민중미술가)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23일에는 대전 지역 동춘당, 송시열 남간정사, 신채호 생가터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이 예정돼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희망자는 8일까지 전화(062-234-2727) 접수. 수강료는 2만원(교재비와 문화답사비 포함).

/박성천 기자 skypark@

지역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획자·단체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 지역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기획자나 문화예술단체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세 번째인 '지역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공모'는 지역의 교육 주체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가 신설됐다.

공모분야는 모두 3개 영역이다. 아시아 문화자원과 예술, 기술 등을 접목한 융합형 체험형태의 'ACC 특화형 워크숍'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그리고 '온라인 문화예술콘텐츠(영상)' 등이다.

선정된 단체 등에는 최대 4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뮤엠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미 가 한 우 명 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우 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